

제주문화가 이슈&현장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리모델링

100억대 새로 고침 '놀리는 공간' 오명 벗을까

개점휴업 예술극장 새단장
가변형의 '블랙박스 공연장'
지하·별관 콘텐츠코리아랩
소규모 상영관 조성 제시된
관악제 사무실은 존치 가다

네이션센터, 제주테크노파크 문화 콘텐츠 분야를 통합해 지난해 출범한 영상문화산업진흥원 건물에 대한 전반적인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반영한 결과다. '난타' 상설극장으로 쓰이던 예술극장의 경우 시설 노후화, 누수, 안전상 문제 등으로 2016년 12월 이후 문을 닫아놓은 상태였다. 지하 1층 1인 창작업주실 일부도 오래도록 비어있었다.

제주도가 밝힌 소요 예산은 제주도의회에서 주문한 옥외 공간을 포함 140억원이다. 당초 계획했던 80억원 대보다 갑절 가량 늘었다.

이중에서 약 50억원은 예술극장을 새로 고치는 작업에 쓰일 예정이다. 346석 규모였던 예술극장은 복합문화공간인 '블랙박스 공연장'으로 다시 태어난다. 객석과 무대의 경계를 두지 않고 가변적인 시스템을 적용해 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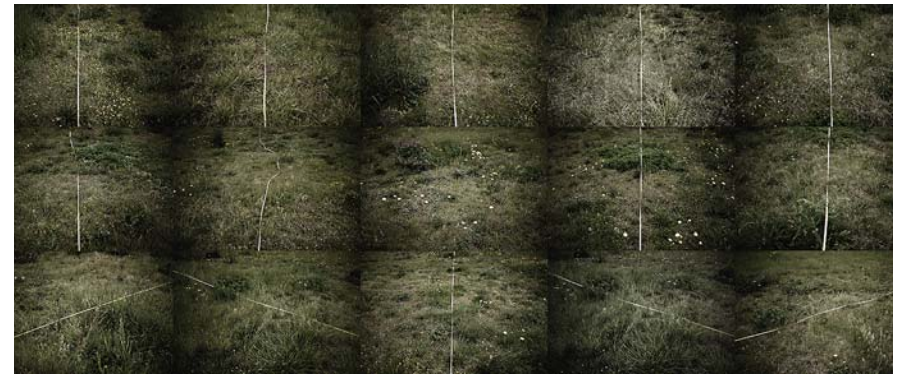
적으로 변형 가능한 시설로 마당놀이부터 창작 콘텐츠 시연까지 여러 장르의 공연을 연출할 수 있도록 했다.

지하층과 별관엔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에서 선정된 창업·창작 인프라인 '제주 콘텐츠코리아 랩'이 들어선다. 콘텐츠 창작자를 대상으로 준비부터 창업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이 제공되는 시설로 꾸민다.

▶"특정 계층 차별받지 않도록" 주문-이같은 사업이 구상되면서 지하 1층에 입주했던 제주장애인연맹 영상미디어센터, 제주미술협회 사무실은 이전이 결정됐다. 반면 2003년부터 건물 1층 옛 신산갤러리를 써온 제주국제관악제조직위원회의 사무실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 조직위 측도 문예회관, 신산공원을 낀 입지 등을 들며 존치를 요구해왔다. 기본설계에서는 관악제조직위 사무실을 '제주영

상문화 도민 문화 향유 활성화 사업'을 위한 50여석의 소규모 영화상영관으로 고쳐 쓰자는 내용이 제시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소규모 상영관까지 갖추려면 공사비가 느는 데다 관악제조직위 사무실이 이사할 공간도 마땅치 않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리모델링은 이르면 12월부터 시작된다. 당장 28억원 확보에 그친 사업비를 새해 예산에 추가 반영할 수 있을지 관심사다. 무산된 소규모 상영관 조성을 어떻게 보완할지도 과제다. 현행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조례는 영상·문화산업 정책 연구와 개발, 영상·문화산업 개발을 위한 제주 문화 원형 발굴과 보존, 영상·문화 기획자 육성과 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면서 '특정계층이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양동규의 '빈땅'.

제주 봄풍경에 어른거리는 그날의 흔적

부천 대안공간 아트포럼리
내달 8일까지 양동규 개인전
4·3 현장 모티브 사진 작업

그의 할아버지는 어린 아들을 남겨두고 먼저 저 세상으로 떠났다. 제주 4·3 당시 토벌대가 야간 목숨이었다. 살아남은 아들은 아버지께 대한 기억이 희미했지만 평생 가슴에 그 그리워했다. 아들의 아들은 그런 아버지를 보며 일찍이 4월의 아픔을 유두 가족사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제주 사진가 양동규씨다.

그가 2010년대 들어 작업한 작품을 중심으로 경기도 부천에 있는 대안공간 아트포럼리를 찾았다. '섬, 섬'이란 이름이 달린 전시로 시각 예술을 통해 70여년 전 제주섬에서 벌어진 '어떤 일'을 물의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있다.

양 작가의 작업은 4·3에서 오늘날 제주 생태까지 다룬다. 과거의 풍경이 그저 한 시대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걸 보여준다.

'XX를 위해 세운 공로'는 누군가의 두개골을 관통했을 총알과 그 죽음을 '덕'에 받았을 훈장이 나란히 배치됐다. 피비린내나는 학살은 우리네 삶을 그렇게 짙어놓았다. 15컷으로 구성된 3m 길이의 대작인 '빈땅'은 정뜨르비행장 유해발굴을 위한 사진 측량 모습을 담았다. '미여진 뱀뒤의 하늘' 역시 3m 크기의 작품으로 도두리와 선율리 유해발굴 현장을 기록했다. 수십 년 세월이 흘러 뼈조각 사라지고 없는 그곳에 작가는 구천을 헤매는 원혼을 달래듯 나부끼는 만장을 날린다.

세월을 들불축제가 끝난 뒤 검게 탄 오름을 잡아낸 '연상', 숲 속에 때죽음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듯한 '검쳐진 풍경'은 제주 땅 어느 곳 4월의 낮을 품지 않은 데가 없음을 새삼 일깨운다. 한라산, 채석장, 곳자왈 나무뿌리 등을 통해선 생태에 가해지는 폭력과 그걸 딛고 일어서는 생명의 경이로움('어이없는 현상'에 대한 투쟁')을 드러낸다.

전시는 5월 8일까지 계속된다. 문의 032)666-5858. 진선희기자

연극인 부부가 그리는 황혼의 사랑

강상훈·정민자씨 출연
제주 버전 '늙은 부부...'
내달 2일부터 한달동안

연극인 부부가 그려가는 '늙은 부부 이야기'는 어떤 빛깔을 띠까. 제주 연극인 강상훈·정민자 부부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2일부터 한달 동안 세이레아트센터에서 연극 '늙은 부부 이야기'를 공연한다.

위성신 작가가 대본을 쓴 '늙은 부부 이야기'는 황혼기에 찾아온 노인들의 마지막 사랑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청춘의 그것과 같은 열정적

인 사랑은 아니지만 천천히 물들어 가며 닳아가는 모습을 통해 사랑의 또 다른 의미를 전해준다. 2003년 초연 이래 TV 드라마 등으로 낮익은 배우 이순재, 양택조, 정종준, 최주봉, 사미자, 성병숙 등이 열연하며 작품성과 대중성을 인정받아온 작품이다.

제주 강상훈·정민자 부부도 '늙은 부부 이야기'를 그동안 여러 차례 공연해왔다. 2015~2016년 이 작품을 들고 제주는 물론 대전, 부산 지역을 순회한 일이 있다.

두 사람이 이번엔 다시 제주 무대에 올리는 '늙은 부부 이야기'는 원작을 바탕으로 하되 작품의 배경과



연극인 강상훈·정민자 부부가 제주를 배경으로 제주방언을 더해 '늙은 부부 이야기'를 공연한다.

언어를 제주색으로 바꿨다. 제주를 배경으로 각색했고 제주방언 대사가 흐른다.

평일에는 오후 8시, 주말과 공휴일

에는 오후 6시 공연된다. 세이레아트센터는 제주시외버스터미널 옆 오라지구대 뒷편 제주가공공단 지하1층에 있다. 문의 1688-4878. 진선희기자

제주 민화로 풀어낸 '파라다이스 제주'

에나르 갤러리 루씨손 초대
제주 문자도 등 소재로 창작

제주에 4년째 등지를 틀고 사는 루씨손 작가가 제주시 한경면 문화예술인마을에 자리잡은 스페이스 에나르(대표 양의숙, 판장 양재삼) 초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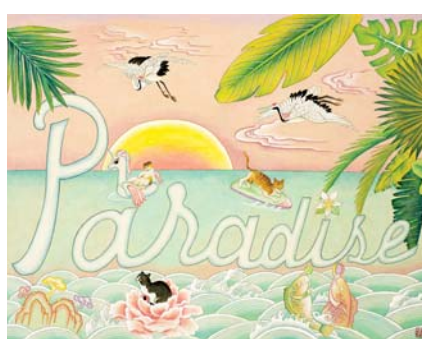
로 제주민화전을 연다. '파라다이스 제주'란 이름 아래 제주 문자도 등을 모티브로 제주에서 품은 감정을 풀어낸 작품들이 나온다.

'파라다이스 제주'는 제작 기간만 5개월이 걸렸다는 2m 크기의 작품으로 전통 표구법을 새롭게 해석한 가리개로 만들었다. 제주 문자도의 특

징을 살려 글자 위 아래 그림을 배치하고 한자 대신 영어를 사용한 작품도 선보인다.

'이어도'는 6m가 넘는 공간에 놓일 설치 작품이다. 단청 기법에 영감을 받아 나무판 위에 민화 속 동물과 풍경을 그려 넣어 관람객들이 그림속에서 노니는 기분이 들도록 이끈다. 작가의 손길을 거친 아트상품과 화집도 만날 수 있다.

전시 기간은 5월 1일부터 8일까지.



개막 행사는 첫날 오후 5시에 열린다. 문의 064)772-4280. 진선희기자

5월 잇단 어린이미술전

재릉초 말 그림·도자기
영어도시 13명 작품전

5월, 제주 어린이들의 미술전이 잇따른다.

제주시 한림읍 재릉초등학교(교장 박은진) 아이들은 그림과 도자기 작품을 준비했다. 5월 3일부터 12일까지 저지문화예술인마을에 갤러리노리에서 진행되는 '재릉초 어린이와 함께하는 말(馬)전'이다.

이번 전시에는 재릉초 1~3학년 어린이들이 그린 그림 218점과 4~6학년 학생들이 빚은 도자기 103점이 나

온다. 갤러리노리는 해마다 어린이날을 기념해 도내 초등학교들과 손을 잡고 '말' 작품전을 열어오고 있다. 개막 행사는 5월 3일 오후 3시. 문의 064)772-1600.

제주영어교육도시에 살고 있는 어린이 13명은 '위 윌 아트 유(WE WILL ART YOU)'란 제목으로 미술전을 펼친다. 교육·치유상담기관인 ASHA를 운영하는 김소영씨가 기획자이자 지도를 맡은 전시로 6~12세 아이들의 작품 80점을 선보일 예정이다.

전시는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서귀포시 안덕면 신화역사공원 안에 있는 제주도·중국예술가교류센터. 문의 010-2996-0924. 진선희기자



보건복지부 인증 의료기관

“서귀포의료원은 보건복지부로 부터
의료서비스 질과 환자안전의 수준을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인증받았습니다!

(유효기간 2018. 11. 2. ~ 2022. 11. 1)



한라일보 창간 30주년을 축하합니다.



**3정형외과 김희천 박사
과장으로 취임**

- 무릎인공관절수술 및 무릎퇴행성관절염에 대해



산후조리원 (예약 : 730-3654, 3655)

- 지역주민들이 기다려왔던 산후조리원이 본격 개원하여 운영중입니다.



장례식장 확장 개실

- 분향실과 접객실이 4개소에서 5개소로 확장되어 운영됩니다.(100석 추가 총 500석)



24시간 분만산부인과

- 언제라도 분만이 가능하여 서귀포 임신부의 병원 이용이 편해집니다.(분만·신생아실)



보호자 없는 병동운영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운영



심뇌혈관센터 운영

- 심뇌혈관 질환, 이제는 서귀포의료원에서도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과 안내

내과(소화기)(3), 내과(순환기)(1), 내과(신장)(2), 외과(1), 산부인과(2), 소아청소년과(2), 정형외과(3),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1), 신경과(1), 신경외과, 비뇨기과, 흉부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2), 영상의학과(2), 진단검사의학과, 응급의학과(8) ※는 진료과 수

Jeju 서귀포의료원 [대표전화 : 730-3000] 안내

주관 : 730-3100
야간 : 730-3015